

## **돌봄을 넘어 함께 가는 마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돈희 사제(성공회 인천나눔의집)

제가 경험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하고자합니다. 코로나 광풍 이전의 지역아동센터 점심시간, 아이들 틈에 끼어 점심을 함께 먹는데 한 여자아이가 '나쁜 빠끼'라는 말을 반복했고, 그것이 거슬렸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인천에도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저는 그것이 '나쁜 새끼'라는 의미였고, 그 아이 스스로도 욕인 것을 알기에 '빠'처리를 한 것이며, 그 대상이 다름 아닌 자신의 친부를 가리키는 것임을 깨닫고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친부는 이혼과 함께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에 친모와 외조모는 아이의 아빠를 '나쁜 새끼'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아이에게는 더 이상 아빠는 없고 '나쁜 빠끼'만 남은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바로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이 황급히 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홀로 지내던 할머니 한 분이 약을 드셨습니다." 중풍으로 거동이 어려웠지만 나름 밝게 지내던 분이셨는데 돌봄 여사님께 병원에 가신다며 오지 말라 말씀하신 그날, 잠이 오지 않는다며 받아 모아 두었던 수면제를 한꺼번에 드신 것입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 중 부모로부터 마음을 다친 아이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생활하는 가정이 그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상처와 학대를 가한다는 사실이지요.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곁에 아무도 없음이 생명의 끈을 스스로 놓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라앉지 않는 지병의 고통, 외로움과 달래지지 않는 우울감을 나눌 이가 없을 때, 어르신들은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 곁에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나쁜 빠끼와 그에게 상처를 입어 아이를 허투루 돌보는 어른들을 대신할 그 마을에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고통에 절어 깊어진 밤, 먹지 않고 모아둔 수면제를 만지작거릴 때, 마음속에 떠오를 따뜻한 누군가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별 사고와 탈이 없다면 노인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약할 때, 그 곁에 누군가가 있었기에 오늘의 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도움을 주고받지 않으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거나 때로는 희생하는 것일까요? 오래전에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본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8명의 미 육군 유격대원들은 형제 3명이 전사한 군인 한명을 무사히 고향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임무를 띠고 독일군 점령지에 침투합니다. 결국 특수대원 8명이 모두 전사하는 희생을 통해 라이언 일병은 무사히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8명의 생명보다 소중한 1명의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 같은 내용에 공감하며 감동합니다.

2017년 6월 30일자 뉴스타파, '세월호 민간잠수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찾아낸 실종자의 주검을 끌어 안았던 '기막힌 포옹'의 기억은 마치 화상자국처럼 민간잠수사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한 명이라도 빨리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하루 4~5번씩 잠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중수색 도중 사고로 숨지기도 했고, 스스로 삶을 놓기도 했다. 또 많은 이들은 정신적 트라우마와 함께 근육통증, 목 디스크, 골괴사 등 잠수병에 시달리고 있다."*

한 잠수사는 수중탐색을 하는 내내 밤이면 꿈을 꾸었습니다. 배에서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는 꿈. 낮에도 밤에도 잠수사는 아이들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잠수사들이 단지 관계당국이 약속한 보상만을 바라고 이 같은 힘겨운 일들을 감내했던 것일까요? 우리 안에는 기꺼이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신보다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하면서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팬치는 나이든 침팬지나 젊은 침팬지나, 그러니까 엄마 침팬지나 딸 침팬지나 둘 다 지 새끼 낳아서 기르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 유일하게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자식을 안 낳는 거죠. 그리고 딸이 낳은 자식을 엄마가 길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집안에 계시면 할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생기는 거죠. 젊은 사람들에게, 다른 동물들은 남의 새끼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건데 인간은 젊은 사람들의 아이를 기르고 어떻게 보면 사회가 아이를 길러주는 식으로 진화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생긴 거죠."* -2016.10.25., 중앙일보, '배영대의 지성과 산책'

최재천 교수의 이론을 따르자면, 우리 인간의 문명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희생, 즉 누군가가 약한 이를 돌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나고 똑똑해서 이룬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보듬을 때, 세상은 더 한 단계 진보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것은 공동체입니다.** 만남, 접촉, 최악이 되어버린 살가움의 표현들.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따뜻함을 주고 받을 수 있을까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노숙인을 위한 급식도, 홀로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배달도, 방과 후 돌봄도 멈추었습니다. 가장 춥고 어렵게 살아가는 끝단에 있는 이들을 위한 배려와 돌봄을 멈춘다는 것은, 보온을 포기함으로 동상에 걸린 신체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잘린 몸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상처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붕괴로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돌봄은 단순한 배려가 아닙니다. 나의 것을 마냥 포기하는 희생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우리 스스로 세워가는 일이며 문명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공동체 끝단까지 피가 돌아 공동체 전체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손녀·손자를 돌보고픈 할머니 마음을 가진 개인들과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비대면 시대에 울고 있는 이들과 보듬기 원하는 이들을 만나게 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게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없이 배고픔과 필요를 채우고, 육체적 고통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상처입은 마음을 위로받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준비하며 배우고, 행복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언제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마을 부엌, 아플 때 찾아갈 수 있는 마을 의원,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마을 놀이터, 경쟁보다 협동을 배우는 마을 배움터, 둘러앉아 노동하는 마을 일터, 내 것 네 것 공유하는 마을 장터, 상처 난 마음을 보듬어주는 마을 상담소. 밀어내기만 했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다시 다가섬을 꿈꿉니다.